

“성숙한 나눔 문화로 ‘행복 대한민국’ 만들자”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자랑스런 전남인상’ 수상 나눔문화 확산·재난 지역위기 극복 기여 공로 인정

“제가 꿈꾸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행복은 쫓지 않아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성숙한 나눔·기부 문화만이 수많은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25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상균(58·사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올해 ‘자랑스런 전남인상’(전남지사 표창장)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자랑스런 전남인상’은 매년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높이는 도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경제·관광·문화·체육·사회 봉사·기타 등 6개 분야로 나눠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유행 등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도 전남 나눔문화 확산 및 활성화, 지역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다양한 캠페인 전개로 전남지역 역대 최고 모금액(241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사무총장은 “전남 최고 권위인 ‘자랑스런 전남인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더 충실히 하라는 도민들의 기대를 받들어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나눔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열매 조직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국내 유일하게 법정 모금하고 배분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이나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일을 하며, 모금한 성금은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등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쓰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사회적인 갈등과 불평등,



재분배, 양극화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라며 “사회를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공동모금회가 플랫폼이 돼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부·나눔문화’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

총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빠르게 진입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나눔·기부문화라는 게 상대를 배려하고, 나 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배려심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 캠페인은 그의 실천과제다.

김 사무총장은 “이 기간 전국민 모두가 사랑의열매 배지를 달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빨간색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세 개의 열매는 나·가족·이웃을 뜻해 나와 가족·이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배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해남 출신의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전북과 광주 등 지역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으로 재임했다. 올해 1월에는 직인 출신으로 최초로 사랑의열매 제8대 사무총장에 선임된 후, 지역별 복지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후성기자

안효성 전남대 교수 미국화학회 ‘젊은 과학자’ 선정



전남대학교 안효성 교수(석유화학소재공학과)가 미국화학회(ACS)의 고분자분과(PMSE)로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과학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젊은 과학자”(2021 ACS PMSE Future Faculty Scholar)는 고분자 재료 연구분야에서 뛰어난 젊은 연구자 가운데 엄선되는데, 수상자들은 내년 3월 미국 샌디에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미국화학회 춘계총회와 함께 열리는 심포지엄에 초대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안 교수는 고분자 기반의 복합재개발과 투과전자현미경 전자 단층 영상 기술 및 머신러닝 기술을 융합해 기존 분석기술로 파악하지 못했던 나노 수준의 구조데이터를 시각화하고, 3차원 구조를 정량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센서에 활용되는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최근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 진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분자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같은 연구 과정에서 국제적인 연구논문 24편을 저명학술지인 Science Advances 등에 발표했다. /임재만기자

제6회 UN평화모델 광주 선발대회 성료

성춘애씨 대상 영예...금상 양서운·김민주·조경순씨

제6회 UN평화모델 광주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UN평화모델광주선발대회조직위원회는 26일 “최근 서구문화센터에서 제6회 UN평화모델 광주 선발대회를 비대면 무관중 행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연기 끝에 일반부·미시즈, 시니어, MTS화장품 모델 부문으로 나눠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UN평화모델 선발대회는 UN평화 취지에 맞춰 2000년 제1회 대회를 열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시니어 부문에 현 시니어모델인 성춘애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일반부 부문 양서운, 미시즈 부문 김민주, 시니어 부문 조경순씨 등이 수상했다.

본선에서 최종 선발된 모델들은 UN평화사절단,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김중훈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모델 대회는 일반적인 모델 대회나 미인 대회 성격이 아닌 주부들과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활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일에 누구보다 보람과 행복을 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표=정해성기자



장흥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 직원에 감사장

장흥경찰서는 26일 “최근 안양농협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장흥군 안양면 수문 농협 ATM기 앞에서 한 남성이 100만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모습을 발견, 수상히 여겨 사용처를 물었다. 이에 남성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전화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112

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대면권취 수거책 피의자로 피해금을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협 직원을 통해 즉시 입금통장 거대 정지와 인접 경찰서 공조 요청으로 피해자를 확보하고 신병을 수사과에 인계해 피해금 700만원을 전액 보전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다. /장흥=노형목기자



담양 봉산면주민자치회, ‘사랑의 구급함’ 전달

담양군 봉산면주민자치회가 최근 감염병 취약 계층에 직접 만든 ‘사랑의 구급함’을 전달, 화제다.

‘사랑의 구급함’은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특화 사업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노인·아동 등 감염병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60개 구급함을 제작했다.

구급함 세트는 타이레놀, 밴드, 물파스, 소독약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이 직접 포장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정 방문 대신 방소영 마을가꾸기 주무관이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

했다. 정종갑 봉산면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쓴 주민자치회와 이장단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더불어 행복한 봉산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송균기자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 청년 쌀 요리경연 금상·동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외식조리제빵과가 쌀 요리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남도음식문화 우수성을 알렸다.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학과장 이봉선)는 최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6회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농업박물관 주최, 문화사업진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청년들의 창조적인 쌀 요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쌀 소비 촉진과 창의적인 남도음식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응대는 이준이·김미소(이상 2년)팀이 ‘단호박 찹쌀 미수, 누룽지국 주먹밥’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또 김민규·이나연(이상 2년)팀은 ‘K-RICE 튀김 라이스페이퍼 찹쌀 채소 절임’ 요리를 만들어 동상을 받았다. /임재만기자

목포재건교회, 대성동에 생닭 40마리 전달

목포재건교회 사랑의봉사단은 26일 “최근 목포시 대성동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생닭 40마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2019년 5월부터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한 생닭을 매월 정기 후원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강만선 사랑의봉사단장은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나눔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용 대성동장은 “꾸준히 나눔을 펼친 목포재건교회 사랑의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



으로도 봉사단과 협력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성기자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한의진)는 최근 소유메이크업에서 4학년 재학생 5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업인 소유메이크업(원장 양정임)과 연계해 캡스톤디자인(담당 이동희 교수)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실습을 통해 취업포트폴리오 전략 이미지 스타일링 북 세부계획을 세웠으며 외모 디자인 연구를 위한 스튜디오 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 취업준비과



정으로 취업지원서 작성과 지원서 사진 등을 직접 촬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재만기자

목포교도소, 사랑의 헌혈 생명나눔 실천

목포교도소는 26일 “최근 목포교도소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포교도소는 매년 상·하반기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 직원·방문인을 대상으로 헌혈 홍보를 실시해 원활한 헌혈 수급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성주 목포교도소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 실천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혈차량에 대한 내부 소독과 대기자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목포=정해성기자

광주대, 유학생 특별활동 프로그램 눈길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유학생들의 안전의식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특별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광주대 국제협력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베트남과 중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등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가을학기 어학연수생 및 학부생 특별활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활동 교육 프로그램은 안전교육과 문화행사, 취업특강 분야로 나눠 펼쳐지며 안전교육 분야는 119재난대응단의 도움을 받아 심폐소생술 및 화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임재만기자

본사 손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 김윤하 경영지원팀장